

투데이칼럼

덕담(德談)

덕담의 사전적 의미는 새해를 맞아 주로 한해 동안의 일들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라시대 임금에 신하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좋은 말을 하는 궁중하례 의식에서 비롯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덕담은 때때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과거 외한위 기때는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이 전국민을 응원하는 '희망의 덕담'이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는 '건강하세요' 등의 덕담이 건강을 염원하는 덕담이 되었다.

단순한 격려의 말을 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덕담의 도구로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선한 의도로 모두에게 온정을 전하던 덕담이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약담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문화 창천에 서툰 사회 분위기와 상투적인 표현 탓도 있다. 세련된 표현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덕담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황분석을 한후에 간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덕담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을 이야기하여도 된다.

모든 말을 가깝다는 이유로, 잘 알고 있다는 착각으로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수처럼 쏘아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된다. 견해가 달라 갈등을 유발할수 있는 소재보다는 음식, 여행, 추억, 취미를 나누며 이야기 하면 좋다.

덕담의 뼈대는 공감과 위로이다.

덕담의 기술은 선입관을 버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예의를 갖춰 말하도록 한다.

새해나 자녀를 결혼식때 덕담을 주로 많이 하지만 축하행사,

예경사의 사스러운 일에는 자연스러운 덕담을 많이 한다.

인사를 건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있었다는 일을 예로 들거나 축하나 감사, 안부 등을 물으며 간단하지만 구체성 있게 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취업과 졸업생들에게 '올해는 하고싶은일 좋아하는일 잘해봐' 동료직원들게 '올해는 자네의 해로 멋진 한해가 되길바라네' '즐거운 직장생활 해보게' 사위나 며느리에게 '올해 너희 가족에게로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네' '오는데 고생했지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결혼하는 자녀나 손주에게 '멋진 인생길 개척해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결혼생활 기대된다'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 못 해도 늘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요', '부모님 즐거운 나날 보내세요'.

일상의 대화를 잘 분석하여 덕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고

'말 한마디로 천량빔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은 진실성을 갖고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듯이 한번 말하기 위해서는 세 번 생각하라는 것이다.

아마도 인간의 불행의 99%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의 조상들도 행동은 민첩하게 하되 말은 신중을 강조하였다.

일반 스노치 유형과 덕담도 잘 못하여 구설수에 오르내리면 안된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의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니 '화(禍)와 복(福)'의 근원인 말을 호감 받게, 인품 있게 해야 한다.

말의 능력을 알았다면 좋은 덕담으로 모두가 기분 좋고 오히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해 본다.

축복받는 환한 을사년(乙巳年)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김 양 욱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난민촌에서도 쫓겨나는 민주공고 주민들



11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고마의 한 난민촌에서 M23 반군과 정부군 간 전투를 피해 거주하던 난민들이 M23 반군의 지시로 다시 캠프를 떠나고 있다.

이집트서 치료받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



가자지구에서 대피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11일(현지 시간) 이집트 엘아리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압델 피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구상에 반대하며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미국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다.

사설

내란 수괴 혐의 관련 대통령 재판 전망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최대 여섯 달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판을 놓고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향후 재판 전망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 기소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직접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부담을 지게 됐다.

윤 대통령이 졸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직접 조사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된다.

그러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직접 조사가 없어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내란 주요 임무 중사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들이 수사를 거쳐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에서 유무죄만 다투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공범자들의 진술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법정 증언하고 그 증언의 신빙성만 재판부는 채택하면 되기 때문이다. 검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 기록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특수본의 의견 등을 종합해 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소를 하면서 이제 추가 압수수색 등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비화론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등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관련 증거 확보엔 실패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진 기록은 3만 쪽에 이르는 상황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준비 기일을 거친 뒤 2월 하순에 시작된다.

민주당 일색 전복

전복에서 지방의원들의 이탈과 물의가 끊어질 않는 건, 바로 민주당 일색인 독점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대부분 솜방망이 정계를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제12대 전북도의회 출범 뒤 물의를 일으킨 광역의원들은 최근 정략 의욕이 제기된 박 모 의원을 빼고도 3명이 더 있다. 식사 접대와 업체 청탁 혐의로 지난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윤 모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공개 경고가 전부였다.

당원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모 의원에 내려진 징계도 경고뿐이었다.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송 모 의원에 대한 처분은 출석 정지 30일에 그쳤다.

기초의회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동료 의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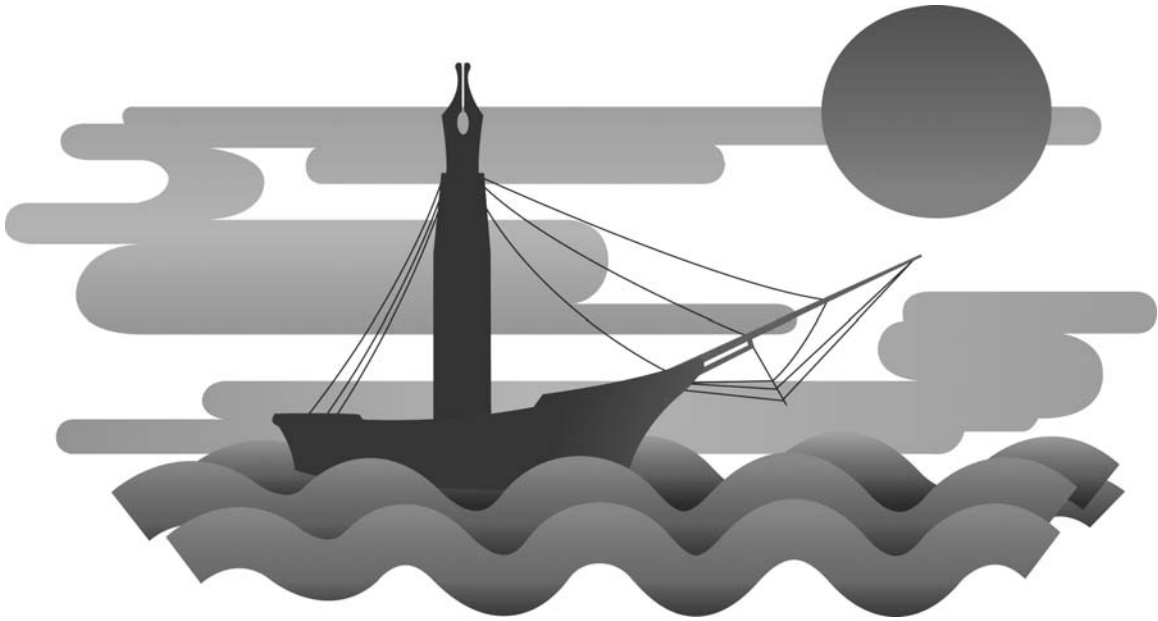
폭행한 김 모 군산시의원에 내려진 조치는 공개 사과뿐이었다. 지난 2023년 8월, 김 모 정읍시의원은 전기자전거로 70대 남성을 친 뒤 현장을 떠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징계는 없었다.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지만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공급하다. 전북도의회의원 40명 가운데 37명이 민주당, 사실상 일당 의회나 다름없다. 전주시의회는 35명 가운데 30명, 군산시의회는 23명 가운데 21명, 정읍시의회는 17명 가운데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같은 정당이다 보니깐 서로 연계되기 일쑤다. 광장민감해하고 나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열려가 있다. 전북은 경쟁 구도가 없어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증과 다름없다. 전북 지방의회의 마운적 대응이 일탈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